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중국 관세폭탄 예고

미국 사상 최대 대중 무역적자 전 美 무역대표부 간부 경고 중국, 반덤핑 조사로 맞불



주당 행정부와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진 조강경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강요된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이상,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미 행정부는 이미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가 끝나면 미 기업이 본 피해에 상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대중국 무역보복에는 재계도

힘을 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SCMP에 "백악관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시장 접근 제한, 보조금, 인터넷 정책, 강요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도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국가 사회주의에 대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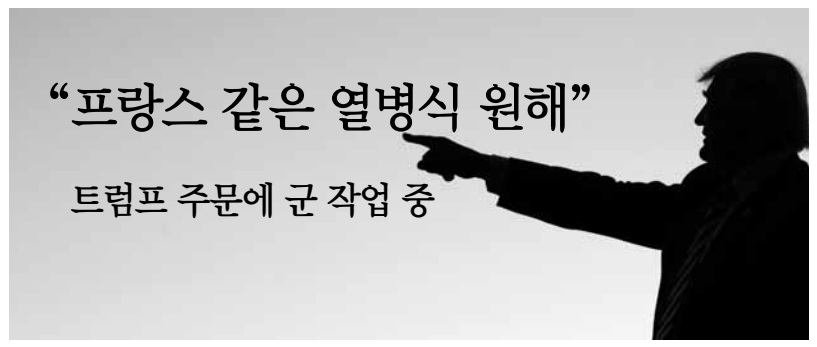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언론, 통신, 금융, 자동차 등 중요 산업에서 외국인 소유 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불기피하게 중국 국영기업 등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

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당초 미국은 중국 시장을 노려 이러한 관행을 묵인했으나, 세계 시장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의 급부상에 위협을 느끼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약 406조원)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로 끝난 셈이다.

중국 정부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사를 선언하고 나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국방부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 고위급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 같은 열병식을 열겠다"고 주문해 군 고위급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과 회동했으며 열병식 주문도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군인이 행진하고, 탱크가 줄지어 지나가는 형태

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열병식 개최 욕망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대통령 훈령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WP의 취재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브레인스토밍" 단계로, 아직 구체화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과 국방부는 결국 "맞다"고 인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국민들이 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탐구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찰리 서머스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 관리들이 대통령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만 심야 6.0 강진...최소 4명 사망·수십명 매몰 피해 커질듯

한국인 10시간 만에 구출



대만 동부 화롄(花蓮)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43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1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 현장에서 한국인 50대 여성이 10시간여만에 구출되기도 했다.



6일 밤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 사망 4명, 실종 85명의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지진 충격으로 기울어진 화롄 시내 원면추이다 빌딩에서 지지대 보강 작업과 함께 수색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 현재 화롄 시내에서 11층짜리 마살호텔과 12층짜리 원면추이다빌딩, 6층짜리 바이진상상빌딩, 9층짜리 우취우추빌딩 4채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다.

대만 중앙통신은 7일 오전 10시(현지시간)께 붕괴된 화롄시내의 12층짜리 원면추이다 빌딩에서 한국 국적의 김모(여·58)씨가 구출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밤 11시 50분 지진이 발생하자 10시간여만이다. 이 건물 9층 5호실에 거주

하던 김씨는 지진으로 출구가 막혀 갇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진 채 붕괴된 원면추이다 빌딩에는 현재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현재 실종자 수십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살호텔에서 60세 여성 한명이 숨지고 민간 가족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66세 남성 사망한데 이어 이날 오전 원면추이다 빌딩 수색과정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현재 상당수의 실종자도 원면추이다 빌딩에 몰려있어 소방당국은 수색구조 작업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

마살호텔에서 연락이 끊긴 2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수색팀은 생존확률이 높다고 보고 중장비를 동원, 구조를 벌이고 있다.

전날 밤 11시50분 규모 6.0의 지진이 화롄 지역을 강타한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151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마존 시총 740조원...MS 넘어 3위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월했다고 CNN머니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6850억 달러(740조7000억원)로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MS 시총(6840억 달러)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아마존보다 시총이 많은 기업은 애플(8150억 달러)과 알파벳(7500억 달러)만 남았다.

이들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시총 1조 달러대 진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주가 상승률이 21%에 달하며 알파벳과 MS의 주가 상승률을 앞섰고 있어 1조 달러대 진입 가능성이 큰 후보로 꼽히고 있다. 애플은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했다.

앞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저스는 지난해 10월 포브스와 블룸버그 집계에서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호로 등극했다. 베저스 CEO의 재산은 현재 1160억 달러(126조원)로 게이츠보다 약 250억 달러 많다. /연합뉴스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환불 고려

애플이 배터리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를 가동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을 고려 중이다.

또 꺼집 현상 방지를 위한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한 동안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 2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수요가 많다"며 배터리

교체 지원 정책 발표 전에 전액을 주고 배터리를 바꾼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아이폰 꺼집 현상을 이르면 2016년 가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 등 구형 아이폰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를 지난해 1월부터 적용했지만, 업그레이드 사실은 한 달이 지난 2월에야 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H.010-3605-5000